〈조사보고〉

미크로네시아 개관: 식민지배와 독립*

김희열**

<차례>

1. 미크로네시아
2. 독일의 태평양 식민지
   2.1 독일 프로이센 제국의 식민지(1884-1919)
   2.2 태평양 식민지: 독일-뉴기니 식민지(1885-1914)
3. 독일의 미크로네시아 지배
   3.1 캐롤라인 제도(1899-1914)
   3.2 북 마리아나 제도(1899-1914)
   3.3 팔라우(1899-1914)
   3.4 나우루(1888-1914)
   3.5 마셜 제도(1885-1914)
4. 결론

국문요약

이 조사보고는 서태평양에 있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미크로네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고 있다.

미크로네시아는 일찍이 유럽의 지배를 받았는데 마리아나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는 16세기 발견된 이후 17세기에서 1898년까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고 이 지역들은 스페인 동인도 식민회사에 속하였다. 19세기 말에 이르면 이 지역들은 미국, 영국, 독일의 지배로 나뉘는데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 이 조사보고는 2010년 4월 23일 탐라문화연구소 "바다" 세미나에서 발표한 「미크로네시아의 어제와 오늘 - 강대국으로부터의 지배와 독립」원고에 기초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독일학과

승리한 후 괌과 웨이크 섬을 얻었고, 길버트 제도(키리바티)는 영국에 속하였다. 독일은 1899년 캐롤라인과 북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를 스페인으로부터 사들였으며 나우루는 1888년 영국으로부터 양도받았고 마셜 제도는 1885년 독일에 속해 있었으며 이 지역들은 '독일-뉴기니'(1884-1919) 식민지에 포함되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연합으로 넘겨졌던 독일 식민지 가운데 나우루는 1920년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위임통치로 넘겨졌고 그 나머지 독일 식민지는 1919년 일본의 위임통치로 넘겨졌으며 일본은 이 지역을 '남양군도'라 명명하여 지배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이 지역은 1947년 미국의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 구역'으로 넘겨진다.

오늘날 미국의 해외 지배지역인 괌, 북 마리아나 제도, 웨이크 섬(무인도)을 제외한 나머지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대부분 섬들은 독립하였다. 그러나 독립된 작은 島國들은 미국과 별도의 연합협약을 체결하여 경제 지원과 島國들의 방위를 맡기고 있어서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다.

주제어 : 미크로네시아 개관

1. 미크로네시아

미크로네시아는 서태평양 적도 이북에 산재하는 작은 섬들의 총칭이며, 태평양의 섬들은 문화적으로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로 나뉜다. 미크로네시아의 서쪽에는 필리핀, 남서쪽에는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 남쪽에는 멜라네시아, 남서쪽과 동쪽에는 폴리네시아가 있다.[1]

1) 폴리네시아는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천개 이상의 섬들의 군집을 뜻한다. 지리적으로는 폴리네시아가 하와이, 뉴질랜드, 이스터(파파 누이) 섬을 잇는 삼각형 안의 섬들로 정의된다. 여기에 속한 다른 섬들은 사모아, 통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있다.

미크로네시아는 2천개가 넘는 열대 기후의 섬들과 산호 환초로 이뤄진 미국 본토 면적 정도의 '작은 섬 바다'에 대한 총칭인데, 미크로네시아의 섬들은 서태평양에 7백만㎢가 넘게 흩어져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거의 모든 섬들이 적도 북쪽에 놓여 있다. 미크로네시아의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거리는 약 4천㎞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괌이 미크로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이다. 19세기 미크로네시아는 다음의 군도로 이뤄져 있었다.

<table>
<tr><td rowspan="10">미크로네시아</td><td rowspan="2">마리아나 제도</td><td>괌[2]</td><td rowspan="2">오늘날 미국의 해외 지배 지역</td></tr>
<tr><td>북 마리아나</td></tr>
<tr><td colspan="2">마셜 제도</td><td>오늘날 마셜 공화국</td></tr>
<tr><td colspan="2">나우루</td><td>오늘날 나우루 島國</td></tr>
<tr><td colspan="2">키리바티/ 키리바시[3]</td><td>오늘날 키리바티 島國</td></tr>
<tr><td colspan="2">웨이크</td><td>무인도, 오늘날 미국의 해외 지배 지역</td></tr>
<tr><td rowspan="3">캐롤라인 제도</td><td>얍</td><td rowspan="4">오늘날 미크로네시아 연방국</td></tr>
<tr><td>츄크/투르크</td></tr>
<tr><td>폰페이</td></tr>
<tr><td rowspan="2"></td><td>코스래</td></tr>
<tr><td>팔라우</td><td>오늘날 팔라우 島國</td></tr>
</table>

이 용어의 유래는 1756년 프랑스 학자 샤를르 드 브로세 Charles de Brosses가 태평양의 모든 섬들을 폴리네시아라고 부른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1831년 프랑스 해군소장 줄르 뒤몽 뒤르빌 Jules Dumont d' Urville은 파리 지리학회 강연에서 처음으로 인종학적 특징 및 지리적 구분을 하기 위해서 폴리네시아 이외에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문화 지리적으로 태평양의 섬들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멜라네시아는 태평양의 서쪽 끝에서부터 아라푸라 해까지 이르며 호주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미크로네시아(육지면적: 약 3.257㎢, 인구: 약 55만 명)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그 뜻은 '작은 섬', 폴리네시아(육지면적: 294.000㎢, 인구: 약 6백만 명)는 '많은 섬들', 멜라네시아(육지면적: 940.000㎢, 인구: 약 6백50만 명)는 '검은 섬들'이라는 뜻이다.

2) 괌은 마리아나 제도의 최남단 섬이자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이다. 포르투칼인 페르디난트 마젤란이 세계를 항해하다 1521년 이 섬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1565년에는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 장군이 괌을 스페인 땅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미크로네시아 지역들은 미국의 해외 지배 지역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작은 島國(팔라우, 마셜, 나우루, 키리바티)들을 이루고 있는데, 과거 팔라우와 더불어 캐롤라인 제도로 불렸던 4개의 군도인 얍, 츄크, 폰페이, 코스래는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을 형성하고 있다.[4] 그 밖에

1668년 이 곳에 처음 가톨릭을 선교한 산 비토레스 신부가 도착했고 스페인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었다. 1668년에서 1815년까지 괌은 멕시코와 필리핀을 오가는 스페인 무역 항로의 주요 거점 역할을 했다. 이때는 괌과 마리아나 제도 및 캐롤라인 제도 전체가 스페인-필리핀 식민지의 일부였다.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괌의 통치권을 가졌으며, 괌은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오고 가는 배들의 정거장 역할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1941년 12월 8일 괌은 일본 군대의 침략을 받았으며, 31개월 지속된 일본 점령 치하에서 괌의 토착민들은 강제 노동, 가족 이산, 감금, 처형, 강제 수용, 매춘 등에 동원되었다. 미국이 괌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1944년 7월 21일 괌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 마리아나 제도도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괌과 북 마리아나, 무인도 웨이크 Wake는 미국의 해외 영토이다.

3) 키리바티 Kiribati는 태평양에 있는 島國이다. 1979년 이전에는 길버트 제도라 불렸으며, 길버트 군도는 태평양에 있는 16개의 환초로 이뤄진 고리 섬들이며 오늘날 키리바티/키리바시 도국에 속한다. 이곳은 1892년 길버트와 엘리스 군도로서 영국 보호령의 일부가 되었고 1916년 영국의 길버트·엘리스 직할 식민지가 되었다. 1971년 이 식민지는 독립을 요구하였으며, 1978년 옛날의 엘리스 군도는 투발루 Tuvalu (크기로는 세계에서 바티칸, 모나코, 나우루 다음 네 번째로 작은 나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독립국이 되었고, 길버트 군도는 그 다음 해 다른 섬들과 더불어 키리바티 도국이 되었다. 키리바티는 지구 온난화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금도 국토가 잠기고 있어서 미래에 국토가 잠길 가능성이 큰 나라이다.

4)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은 태평양의 섬나라이다. 이 나라는 미크로네시아의 캐롤라인 제도의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얍, 츄크, 폰페이, 코스래로 이뤄져 있다. 언어는 영어가 공용어이며, 많은 지역어 및 토속어가 있다. 이 언어들 가운데 몇 몇 언어들은 역사와 더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고 일본어와 영어의 영향을 받았다. 제2차 대전 중에는 특히 츄크가 뉴기니, 비스마르크 다도해와 솔로몬 제도를 공격하기 위한 일본의 전진기지가 된다. 1944년 2월 중순 츄크는 해일스톤 작전 범위에서 미해군 전투 비행기에 의해서 심하게 폭격을 받았고 그곳에 주둔하는 일본군들이 섬멸되었다. 1947년 미크로네시아는 유엔의 위임을 받아 미국이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를 하였다. 1970년 미크로네시아인들은 주권을 가지게 되어 1979년 얍, 츄크, 폰페이, 코스래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헌법을 마련하였고 미국과 연합계약에 서명했는데, 이 협약은 국가방위와 경제지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

미크로네시아는 오랜 세월 각기 독자적인 문화, 언어와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리적으로만 미크로네시아의 섬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다르며, 원주민의 전통적 생활 방식, 섬들의 크기 및 각 섬들의 지질학적 특성도 다르다.

1885에서 1914년 사이 독일이 지배했던 미크로네시아의 캐롤라인, 북 마리아나, 팔라우, 마셜 제도는 16세기 스페인의 해양 개척 때 발견되었다. 이후 미크로네시아는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 이전까지 길버트 제도(오늘날 키리바트 島國에 속해 있음)를 제외하고는 스페인에 속해 있었다.[5]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같은 해 괌은 미국에 양

4개의 연방들은 1986년 미크로네시아 연방 연합국으로 마침내 독립하게 된다.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의 가장 큰 수입원은 미국과의 연합협정에 의거해서 지원되는 미국의 경제 원조이며, 이스라엘은 교육, 농업과 의료 분야에서 이 연방국을 지원하고 있다.

5) 스페인-미국 전쟁은 1898년 4월 25일에서 8월 12일 사이 약 4개월 간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벌어진 군사 대립이었으며 미국 역사에서 '빛나는 작은 전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쿠바, 푸에르토리코, 괌과 필리핀을 얻었고 스페인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식민지를 잃은 것이다. 스페인-미국 전쟁은 미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그 관심 지역을 확대하는 미국 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였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발견 이후 중요한 유럽의 강대국이었으나 18세기에 이르면 스페인의 거대 제국의 영향은 약화되었고 19세기 말 이베리아 반도 전체가 나폴레옹에게 굴복한 이후에는 거의 모든 라틴 아메리카에서 부흥하기 시작한 독립운동들이 그 목적을 달성케 된다. 남아 있는 것은 카리브해의 쿠바, 태평양의 필리핀과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연안 지역만 스페인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식민지들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높고 부당한 세금 부담과 정책 및 행정에 그곳 주민들의 반발이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고 여기에 덧붙여 식민 세력에 반대하여 반기를 든 토착민들을 부추기는 미국의 정치 경제적 관심이 더해졌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미국 대통령들로 하여금 여러 차례 쿠바를 강점하거나 쿠바를 사는 것을 고려하게 하였다. 1850년대 스페인은 쿠바를 팔라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즈음 미국정책은 스페인의 해외 식민지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었다. 1878년 스페인과 쿠바 사이에 평화 협정이 맺어졌으나 독립운동은 진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다. 스페인에 대항한 쿠바의 게릴라전은 지속되었고 식민세력을 곤경에 빠뜨렸다. 미국은 1865년 남북전쟁(1861-65) 이후 경제 침체로부터 1890년대 회복된 후 쿠바 경제

도되었고, 독일은 패전한 스페인으로부터 1899년 팔라우, 캐롤라인과 북 마리아나 제도를 사들였다. 한편 1885년 10월부터 마셜 제도는 이미 독일 보호령이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독일의 미크로네

를 지원하였다. 그 밖에 아시아 시장이 오래 동안 미국의 관심지역이었는데, 필리핀은 높은 경제 가치가 있었으며 스페인 치하의 마닐라는 동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무역의 요충지였다. 미국은 이미 태평양의 하와이와 사모아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닐라 정복은 1896년 이후 미국 정부의 전쟁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었다. 게다가 쿠바에서 반란자들에 대한 스페인 정책이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미국 언론의 큰 주목을 끌었다. 그래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마침내 1897년 신년 메시지에서 미국은 끝임 없는 스페인의 쿠바 말살 정책에 직면해서 이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항의에 대해서 미국은 아바나 항구로 전함을 보냈으며, 동시에 스페인 식민 군대의 후송 병력을 차단하고 식민군대가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군함을 통해서 쿠바 섬 봉쇄 준비에 들어갔다. 당시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미대통령 맥킨리가 1898년 4월 11일 언론의 압력 때문에 쿠바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미군의 쿠바 파병 승인을 요청하였다. 4월 19일 의회와 상원은 공동으로 쿠바로부터 스페인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결정하였고 쿠바의 독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맥킨리는 모든 필요한 군사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은 미국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4월 25일 전쟁을 선포하였다. 전쟁은 먼저 필리핀 다도해에서 시작되었는데, 미국 아시아 함대가 1898년 5월 1일 마닐라 만 전투에서 스페인 함대를 굴복시켰다. 한편 6월에 미군은 쿠바에 상륙하였고 카리브해에서도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은 군사적으로 우월한 미국에 맞설 수가 없었다. 미국 배들은 모든 쿠바의 항구를 봉쇄하였고 스페인 함대 공격도 감행하였다. 카리브해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스페인의 처지는 필리핀에서도 전망이 없었으며 마닐라는 미국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프랑스의 중재로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1898년 12월 10일 파리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스페인은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미국에 양도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해서 2천만 달러(약 2백억)를 지불하였다. 스페인은 이 평화 협정을 통해서 10년 동안 필리핀 항구에 배를 정박하는 것과 미국과 같은 조건 하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하였다. 쿠바는 1902년 공화국으로 선포되었으며,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해외 지배 지역이 되었다. 필리핀은 스페인-미국 전쟁의 결과로써 미군 해외 지배지가 되었다. 필리핀은 1941년 일본 점령 때까지는 미국 지배를 받았고 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독립을 쟁취하였다. 스페인-미국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부상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독일제국은 1898년 스페인의 패배를 기회로 1899년 2월 12일 독일 전함으로 스페인을 위협해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독일-스페인 협약을 맺게 해서 캐롤라인 제도, 팔라우 및 북 마리아나 제도를 스페인으로부터 17백만 마르크(약 90억)에 사들였다. 결국 독일제국에게는 이 협약이 미크로네시아 지역으로 식민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아 지배 지역은 국제연맹에 귀속되어서 1919년 일본의 남태평양(남양군도) 위임 통치구역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 미국의 태평양 군도 신탁통치 구역이 되었다. 미국의 해외 통치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크로네시아는 오늘날 5개의 섬나라로 나뉘어 독립하였으며, 미크로네시아 島國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미크로네시아/독립	수도	면적(㎢)	인구	1인당 소득	공용어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1986	팔리키르	702	약 110.000	약 2000 S$	영어
팔라우/ 1994	멜레케옥	508	20.750	7500	영어/팔라우어
나우루/ 1968		21,3	13.500	13000	영어/나우루어
마셜/ 1986	마주루	181	63.000	2600	영어/마셜어
키리바티/ 1979	남 타라바	811	113.000	686	영어/길버트어
괌(미국)		549	168.000		영어/차모로어
북 마리아나(미국)	사이판	477	82.459		영어/차모로어 등
웨이크(미국)		7,37	무인도		

2. 독일의 태평양 식민지

2.1 독일 프로이센 제국의 식민지 (1884-1919)

독일제국은 1871년에서 1945년 사이 독일의 명칭이며, 이 용어 속에는 독일신성로마제국 (911-1806)을 지칭하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이 식민지를 가졌던 시기는 독일 프로이센 제국 시절이었으며, 이 시기 독일 역시 후발 주자로서 제국주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 식민지역(아프리카, 태평양 등)은 다음과 같다.

독일-남서 아프리카	오늘날 남미비아, 보츠와나 서쪽 카프리	1884-1918
토고 랜드	오늘날 토고와 가나의 동쪽 지역	1884-1919
카메룬	오늘날 카메룬, 나이제리아 동쪽, 챠드 북동쪽, 가봉 북쪽 지역	1884-1919
독일-동 아프리카	오늘날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모잠비크의 키온가 삼각지역	1885-1919
독일-위투	오늘날 케냐	1885-1890
독일-소말리아 해안	오늘날 소말리아	1885-1888
독일-뉴기니 지역	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와 멜라네시아 지역	1885-1914
키아우초우 (교주 膠州)[6]	산동 반도 남쪽에 독일이 99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임차한 지역 (그 수도는 칭따오/청도)	1898-1914
독일-사모아 지역[7]	오늘날 사모아 국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지역에 속함)	1899-1919

6) 키아우초우Kiautschou(교주 膠州)는 중국 청나라로부터 독일이 임차한 산동반도 남쪽 지역이며, 이곳 수도는 청도(칭따오)였다. 칭따오(청도)는 1897년에서 1914년까지 '독일 키아우초우 보호구역'의 수도로서 독일 지배하에 있었으며, 이 시기에 독일식 양조장, 역, 교회 및 주지사의 관사를 지었으며 특히 독일 맥주는 오늘날도 그 기술로 청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프로이센 독일제국은 이 임차계약을 통해서 동아시아 독일 해군함대 기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1860년 프로이센 탐험선이 아시아에 당도해서 키아우초우 만 주변을 탐사하였고 그 이듬 해 중국과 프로이센 사이에 무역협정이 체결된다. 1897년 11월 1일 두 명의 독일 선교사가 중국에서 살해되었는데, 이것은 빌헬름 2세 황제에게 키아우초우 만을 점령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었다. 독일은 11월 7일 동아시아 함대 부함장 오토 디데릭스 Otto von Diderichs에게 이곳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11월 14일 독일 해군이 키아우초우 만에 상륙하여 전투없이 점령하였다. 중국은 독일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두 나라의 협상이 11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1898년 3월 6일 독일은 99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키아우초우 만을 임차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6주 후인 1898년 4월 27일 이곳을 공식적으로 독일 보호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양국의 임차 계약에 따라 중국정부는 임차 지역(여기에는 키아우초우 시는 포함되지 않음)과 임차지역으로부터 50㎞ 반경의 안전지대를 포함해서 중국의 지배권을 독일에 넘겨주었고, 또 중국은 독일에 두 개의 철도노선 건설 허가권과 석탄 채굴권도 내주었다. 독일의 임차 지역은 1914년 11월 7일에서 1922년까지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됨으로써 키아우초우의 독일 임차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케 되었다.

7) 독일-사모아 식민지는 1899년에서 1914년까지 아시아-태평양에 있는 독일 식민지

2.2 태평양 식민지: 독일-뉴기니 식민지 (1885-1914)

독일-뉴기니는 독일-사모아(폴리네시아 지역) 식민지를 제외하고 태평양에 있는 독일 전체 식민지역을 뜻하는데 독일-뉴기니 식민지는 뉴기니-컴퍼니가 다스렸던 시기를 포함해서 1885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 종식 때까지 독일 제국의 태평양 지역의 식민지를 뜻하며[8], 독일-뉴기니 식민지는 멜라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에 걸쳐 있었고 그 지역은 다음과 같다.[9]

로서 서사모아 제도를 뜻한다. 독일-사모아 식민지는 오늘날 사모아 국에 속하는 지역이다. 폴리네시아에 있는 독일-사모아 식민지는 멜라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있는 독일-뉴기니 식민지와 분리해서 운영되었는데, 1914년 뉴질랜드 군대가 독일-사모아 지역을 점령하였고 1919년 국제연맹에 의해서 뉴질랜드 위임 통치 지역이 되었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뉴질랜드 신탁통치를 받다가 1962년 독립하였으며, 동사모아(미국-사모아)는 1962년 이후 미국의 해외 통치 지역이다.

8) 뉴기니-컴퍼니 Neuguinea-Kompagnie는 1882년 베를린에서 은행가들과 대자본가들이 만든 회사이다. 이 회사의 목적은 남태평양의 식민지 획득, 특히 뉴기니, 비스마르크 다도해의 군도와 솔로몬 제도를 소유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있었다. 이 회사 창립 회원은 은행가 아돌프 한제만 등을 들 수 있다.

9) 뉴기니는 호주 대륙의 북쪽에 놓여 있으며 786.000㎢의 면적을 지니고 있고 지구상에서 그린랜드(덴마크령) 다음으로 큰 섬으로서 멜라네시아 지역에 속한다. 뉴기니 서쪽 부분, 서파푸아 (이리안 자바/ 서뉴기니)는 1963년 인도네시아로 넘어갔고 섬의 동쪽은 1975년부터 파푸아-뉴기니 국에 속한다. 뉴기니는 1884년 이후에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제국의 식민지로 분할되어 있었다. 네덜란드는 섬의 서쪽 절반을 네덜란드-뉴기니로 점령해서 1898년에서 1962년까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경영, 남동쪽은 영국(영국-뉴기니), 북동쪽은 독일이 1885년 5월 17일 차지하여서 카이저 빌헬름 랜드(북동쪽 뉴기니)로 불렸다. 영국령은 1906년 호주에 넘겨졌으며, 태평양 전쟁 때인 1942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 군대가 이 섬의 북쪽을 점령한다. 과거 네덜란드-뉴기니 지역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소유가 되었고, 뉴기니 동쪽(독일과 영국 뉴기니)은 1975년 11월 16일 파푸아-뉴기니 국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카이저 빌헬름 랜드		뉴기니 북동쪽 지역, 멜라네시아, 파푸아-뉴기니 국에 속함	1885-1914
비스마르크 다도해 군도	노이폼머른/ 뉴브리튼	뉴기니 동쪽 연안 맞은 편, 멜라네시아, 오늘날 파푸아-뉴기니 국	1885-1914
	노이메클렌부르크/ 뉴아일랜드		
	노이하노버/ 라본가이		
부건빌 Bougainville		북솔로몬 군도에 속한 섬, 멜라네시아, 오늘날 파푸아-뉴기니 국	1885-1918
북솔로몬 제도[10]	초이설Choiseul	멜라네시아, 오늘날 파푸아-뉴기니 국에 속함	1885-1814
	이사벨 Isabel		
캐롤라인 제도		미크로네시아 지역	1899-1914
북 마리아나 제도			1899-1914
팔라우 제도			1899-1914
나우루 제도			1888-1914
마셜 제도			1885-1914

(*이탤릭체* 제도들은 1914년 호주 군에 의해, 나머지 제도들(부건빌 제외)은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음.)

1884년 영국이 뉴기니 동쪽을 점령했을 때, 뉴기니-신티케이트의 오토 핀쉬 Otto Finsch는 같은 해 뉴기니 북해안과 비스마르크 다도해 군도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1884년 11월 3일 비스마르크 제도에 속한 마투피 Matupi 섬에 독일 군함들의 함장들이 독일 국기를 꽂았다. 1884년 9월 11일 영국이 귄스 아일랜드(호주)의 식민통치를 요구하자 이곳

10) 북 솔로몬 제도는 독일제국이 1885년 보호지역으로 삼았으나 제1차 세계 대전 후에는 북 솔로몬이 호주의 지배하에 있다가 오늘날은 파푸아-뉴기니 국에 속해 있다. 솔로몬 제도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1942년 일본군대에게 점령되었으나 그 이듬해 미국이 일본을 축출하였고, 2차 대전 종전 후에는 솔로몬 제도가 다시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남 솔로몬은 1978년 솔로몬 국(남 솔로몬, 렌넬, 자바, 산타 쿠루츠 군도로 이루어져 있음)에 편입,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을 영국 점령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오토 핀쉬와 함께 탐험대가 시드니에서 출발하였다. 같은 해 독일은 뉴기니 북동쪽(카이저 빌헬름 랜드), 영국은 뉴기니 남동쪽(브리튼-뉴기니), 네덜란드는 서쪽(네덜란드-뉴기니)을 차지하였다.

은행가 아돌프 폰 한제만은 1882년 남태평양 식민회사, 즉 뉴기니-신디케이트(1885년부터 뉴기니-컴퍼니로 변경)를 창설하여 1884년 8월에 독일제국의 재상 비스마르크로부터 뉴기니 경제 식민 통치 허가를 획득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 지배하에 놓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북동 연안에 독일회사의 지점을 설치하였다. 함부르크 로베르트손 & 헤른스하임 회사와 합병된 후 뉴기니-컴퍼니는 1885년 5월 17일 독일 황제의 보호장을 받고 뉴기니 북동쪽 카이저 빌헬름 랜드 지배권과 비스마르크 다도해 군도의 경영을 양도받았다. 1886년 12월 13일에는 북 솔로몬 군도(부건빌, 초이설/라우루, 이사벨)가 뉴기니-컴퍼니 경영 지역에 추가 병합되었다. 그 당시 뉴기니-컴퍼니는 자율적 지배 경영권 및 독일제국 황제가 인정한 곳을 소유하고 독자적으로 그 지역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과의 외교권은 물론 황제 정부에 있었다. 그러나 이 컴퍼니의 파산 위험 때문에 결국 독일은 1898년 카이저 빌헬름 랜드를 포함해서 독일-뉴기니의 식민지를 직접 다스리게 되었고, 당시 독일-뉴기니 식민지의 전체 면적은 240.000㎢에 달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호주의 군대가 1914년 8월 미크로네시아의 카이저 빌헬름 랜드, 비스마르크 다도해의 군도들, 솔로몬 제도와 나우루를 점령했으며 마리아나, 캐롤라인, 팔라우와 마셜 제도는 거의 싸우지 않고 일본 군대에 넘겨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일본의 위임통치가 미국에게로 넘겨진다. 그러다가 이 제도들이 독

립하게 되는데, 나우루는 1968년, 멜라네시아 지역의 카이저 빌헬름 랜드, 비스마르크 다도해의 군도 (노이폼머른, 노이하노버, 노이메클렌부르크)와 부건빌은 1975년 파푸아-뉴기니의 일부로, 캐롤라인 제도는 1986년 미크로네시아 연방국과 1994년 팔라우 도국으로 분리 독립하였고, 마리아나 제도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허락되기는 하지만 오늘날까지 미국의 해외 지배 지역이 되었다.

3. 독일의 미크로네시아 지배

3.1 캐롤라인 제도(1899-1914)

캐롤라인 제도는 서태평양의 다도해에 위치한 미크로네시아의 섬 지역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필리핀, 동쪽으로는 마셜 제도 사이에 넓게 흩어져 있다. 캐롤라인 제도의 다도해는 서태평양에서 2백만㎢ 이상 드넓게 펼쳐져 있으며 그 가운데 약 1천㎢의 지역은 평평한 육지이다. 캐롤라인 제도의 500개가 넘는 환초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오늘날은 캐롤라인 제도가 미크로네시아 연방국과 서 캐롤라인의 팔라우 도국으로 나뉘어져 있다.

캐롤라인 제도의 일부 섬들에 맨 먼저 1525년 포르투칼인 디에고 다 로챠 Diego da Rocha가 발을 내딛었고 이곳을 세케이라 Sequeira 제도라고 명명했다. 1526년에는 스페인인 알론스 데 살라사르 Alons de Salazar, 1528/29년에는 알바로 데 사베드라 Alvaro de Saavedra가 이곳에 당도하였다. 16세기까지 스페인 선원들의 이 섬들 발견은 캐롤라인 중부와 동부의 섬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686년 스페인인 프란시스코 라세아노 Francesco Lazeano가 서쪽에 있는 얍 군도를

발견하였고 그는 그 당시 스페인 왕 카를로스 2세 (1661-1700)의 명예를 기리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따서 '카롤리나 Carolina'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다도해 전체가 카롤리나(영어: 캐롤라인 Caroline)로 불리게 된 것이다. 마닐라에서 예수교 회원들이 1710년 캐롤라인 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였다. 1731년 예수회 신부 후안 안토니오 칸토바 Juan Antonio Cantova가 살해되었을 때 스페인은 이 군도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우리지 않았다.

이후 캐롤라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1816년 처음으로 오토 폰 코체뷔 Otto von Kotzebue(마셜제도의 지도도 제작함)와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 Adelbert von Chamisso[11]의 탐험대가 가져왔고 1828/29년 프랑스의 루이스 이지도어 뒤프레이 Louis Isidore Duperrey, 특히 1827/28년 러시아의 페도어 페트로비치 뤼트케 Fedor Petrowitsch Lütke의 탐험보고서가 있다. 나중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과 스페인의 선박들이 연안에 당도하였다. 미국선교사 존 토마스 굴릭 John Thomas Gulick은 폰페이 섬에서 1853-56년 사이 기상관찰을 했고, 1868-69년 사이 폴란드의 인종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요한 스타니스라우스 쿠배리 Johann Stanislaus Kubary가 인종학적 그리고 동물학적 조사들을 했고 다양한 여러 섬들에서 물품을 수집하였다. 독일이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는 기상학 기지가 설치되었고 독일 관리들에 의해서 주민과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A. 크래머와 함부르크 남

11)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1781-1838)는 독일 자연 과학자이자 시인이었다. 그의 식물학 분야의 저자 이니셜은 "샴 Cham"이며, 1815년에서 1818년까지 자연과학자로서 세계 항해에 나섰다. 러시아 선장이자 발트 지역 출신 독일계 오토 코체뷔의 탐험선을 타게 되었는데, 이 탐험은 러시아의 후원으로 이뤄진 일이였고 특히 폴리네시아와 하와이 지역을 집중 연구했다. 샤미소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을 휴머니즘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평양 탐험대에 의해서 이 지역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전달되었고, 독일의 식물학자 게오르그 볼켄스 Georg Volkens에 의해서 얍 군도의 식물군이 조사되었으며 독일 해군에 의해서 많은 섬들이 새롭게 기록되었다.

한편, 1885년 8월 24일 독일 포함 일티스 Iltis가 그 당시 캐롤라인 주섬이었던 얍 군도에 독일 제국기를 게양하였다. 같은 목적으로 마닐라로부터 스페인 함대들이 파견되었으나 독일보다 늦었다. 스페인은 독일의 행동에 분격했고 소위 말하는 캐롤라인 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오토 비스마르크는 마드리드로부터 캐롤라인이 예전에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실제 증거를 요구한 반면, 스페인 정부는 이곳의 주권을 계속 주장하였다. 마침내 양국은 비스마르크의 제안으로 교황 레오 13세의 중재 하에 1885년 10월 22일 스페인은 이 캐롤라인 제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받지만 독일은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를 확고히 한다는 데 합의를 보게 된다.

1899년 스페인-미국 전쟁 이후 캐롤라인은 스페인에서 독일로 팔려나갔고, 캐롤라인 제도는 독일-뉴기니의 식민지역의 일부가 된다.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4년 이 섬들은 일본에 의해 점령되었고 이후 1919년 일본은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통치권을 부여 받았다.[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섬들이 유엔 신탁통치 지역으로 미국의 지배로 들어갔다가 1986년 이후 캐롤라인 제도에서 독립 국가들(미크로네시아 연방국: 1986, 팔라우 島國: 1994)이 탄생되었다.[13]

---

12)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위임통치란 일본의 남태평양(남양군도) 위임통치를 뜻하는데, 일본국은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여 국제연맹이 부여한 위임 통치의 모든 의무를 무효로 만들고 1930년대부터 위임 통치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으나 1941년 12월 7일 발발한 태평양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종식과 더불어 이 지역은 다시 유엔에 의해서 미국의 신탁통치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3.2 북 마리아나 제도(1899-1914)

마리아나 제도는 태평양에 있는 섬 그룹이며, 문화적으로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속한다. 이 군도는 지리 정치적으로 미국 해외 통치지역인 괌과 북 마리아나 군도로 나뉘고 있다. 마리아나 제도의 모양은 가장 북쪽에 위치한 파랄론 데 파자로스 섬으로부터 가장 남쪽에 위치한 괌 근처의 코코스 섬까지 약 800㎞ 이상 뻗어 있다. 대부분의 섬들은 화산 발원지이자 붉은 색 산호섬의 근원지이다. 남쪽에 있는 네 개의 큰 섬인 괌, 로타, 사이판과 티니안에는 사람이 살지만 대부분 섬들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다. 마리아나 제도의 크기는 1026㎢이며 2005년 기준으로 주민은 약 25만 명이다. 이 마리아나 제도에 속하는 15개 섬들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그리안, 아구이한, 알라마간, 아나타안, 아스쿤시온, 파랄론 데 메디닐라, 파랄론 데 파하로스, 괌, 구구안, 마우그, 파간, 로타, 사이판, 사리간, 티니안이다.

마리아나 제도는 1521년 3월 6일 포르투칼인 페르디난트 마젤란(1480-1521)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곳을 "이스라스 데 라드로

13) 미크로네시아의 신탁통치 지역 가운데 1986년 11월 3일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1990년 12월 22일 마셜 제도 공화국, 1994년 10월 1일 팔라우 도국(島國)이 생겨났다. 영연방에 속해 있던 북 마리아나 제도는 1978년 미국의 해외 통치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미국은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마셜 제도 공화국, 팔라우 도국과 연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무엇보다도 이 태평양 국가들의 군사안보를 미국이 책임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지역(마셜 제도, 마리아나 제도, 캐롤라인 제도) 신탁통치는 40여년(1944.6.19- 1987.7.10)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신탁통치의 주 본부는 호놀루루 루저 항구에 설치되었다가 1954년 괌으로 옮겼고 이후 1963년 사이판으로 옮겨 갔다. 2차 대전 시기에는 연합국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원자재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 상업회사(USCC: United States Commercial Company)를 하부 조직으로 신설하여 신탁통치 지역에서의 경제를 담당하게 하였다. 1947년 USCC는 군도 무역회사(ITC: Island Trading Company)로 대체되었다가 1954년부터는 군도 토착민이 외국과의 교역을 맡고 있다.

네스 Islas de Ladrones"(도둑섬)으로 불렀다. 이것은 그 당시 이곳 주민들이 마젤란의 배로 와서 도둑질을 해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1667년 스페인이 이 섬들을 소유하였고 스페인의 필립 4세의 왕비인 마리아 안나 폰 오스트리아 Maria Anna von Österreich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 제도'라고 불렀다. 스페인-미국 전쟁 이후 1898년 스페인은 마리아나의 남쪽 부분(괌)을 미국에 넘겼고, 1899년 2월 12일 독일-스페인 협약으로 북쪽 부분(북 마리아나)은 독일 제국에 팔았으며 이로 인해서 이곳은 독일-뉴기니 식민지의 한 부분이 되었다. 마리아나 제도는 1914년 일본에 점령되었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에 의해서 일본 남태평양 위임 통치 지역이 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엔을 통해서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다. 마리아나 제도는 미국의 중요한 군사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에 1978년 미국에 연합된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자치가 허용된 미국의 해외 통치 지역이 되었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언어는 차모로어 Chamorro이며, 이 언어는 미크로네시아 언어들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나 제도의 문화는 옛 문헌에서 '멜라네시아 문화권'의 범위에 속한다.

3.3 팔라우(1899-1914)

팔라우/벨라우는 태평양에 있는 섬 국가이며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속한다. 팔라우는 캐롤라인 제도의 서쪽 군도 및 파푸아-뉴기니의 북쪽에 놓여 있다. 팔라우의 6개 군도는 356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중 11개 섬에만 사람들이 산다. 1994년부터 팔라우 도국이 되었고, 팔라우의 첫 주민들은 인도네시아, 호주 혹은 폴리네시아에서 왔으며 천년경부터 이 섬에 사람이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팔라우는 1543년 스페인 탐험가 루이 로페스 데 빌라로보스 Ruy López de Villalobos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고 1574년 팔라우는 스페인-동인도 총독청에 편입되었고 나중 뉴스페인 부왕국으로 되었다. 19세기 후반기에 스페인이 이 섬들을 식민지화했으나 스페인-미국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한 후 1899년 독일-스페인 협약에 따라 독일에 팔았고, 독일은 이곳을 독일-뉴기니의 일부로 삼았다. 1914년 8월 15일에 일본은 독일제국에 전쟁을 선포했고 이 섬들을 점령해서 나중에 국제연맹의 일본 남태평양 위임지역으로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팔라우 제도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전투 이후 1947년 이 섬들은 미국의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 구역으로서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1978년 팔라우 시민들은 앞으로 건국될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에 속하는 것에 반대 투표하였고 독자 독립을 희망했으며, 1994년 10월 1일 팔라우는 독립하였다. 그 전에 팔라우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미국과 연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계속 이 공화국의 외교정책과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대가로 미국은 팔라우에 경제 지원을 하고 있다. 1994년 12월 팔라우는 유엔 회원국이 되었으며 마셜 제도 공화국과 미크로네시아 연방국과 더불어 유엔 총회에서 유일하게 쿠바를 반대하고 이스라엘에 찬성하는 미국의 편을 지지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3.4 나우루(1888-1914)

나우루는 13.770(2008년 기준)명의 주민을 가진 島國이며, 면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바티칸, 모나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이며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속한다. 이 島國의 서쪽에는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북

쪽에는 마셜 제도 공화국, 동쪽에는 키리바티 도국과 남쪽에는 솔로몬 도국이 있다. 나우루의 주민은 오래 동안 풍부한 인산염 채굴로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인산염 채굴이 활발하던 과거 1980년대 초에는 나우루가 아랍 에미리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다. 그러나 인산염 채굴이 거의 다 이뤄진 지금 시점에서는 빈곤이 더해져서 발전도상국 수준으로 떨어졌고, 국가 재정은 파산 상태로 가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태평양 제도 포럼의 지원 조치를 통해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래 나우루에는 12개 부족이 살았었고, 오늘날 국기에 12개의 별 표시로 나타나 있으며 그 후손들이 아직도 나우루에 살지만 종족이 아니라 구역으로 나뉘어 살고 있다.

서태평양 영향권 지역에 대한 1886년 독일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서 나우루는 1888년 독일에 양도되었는데 그 목적이 독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0년 거대한 인산염이 발견된 이후부터 1906년 영·독 합자회사에 의해서 그 채굴이 시작되었다. 이후 나우루는 1914년 호주군대에 점령되었다가 1920년 이후 영국·호주·뉴질랜드 3국의 신탁통치령이 되었고 1968년 1월 31일에 독립하였다. 나우루는 전체적으로 지형이 평탄하고 최고점이 70m를 넘지 않으며 남서부에는 부아다호가 있으며, 독립 후 영국 연방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00년에는 정회원이 되었다. 나라가 매우 작아서 특별히 수도로 정해진 곳은 없으나 가장 번화한 곳은 야렌 지구이다. 국방은 호주가 담당하며, 1999년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3.5 마셜 제도(1885-1914)

마셜 제도 공화국은 서태평양에 있는 섬 국가이다. 이 나라는 미크로

네시아에 속하는 같은 이름을 지닌 군도를 포함한다. 마셜 제도는 두 개의 거의 평행으로 나 있는 섬과 환초 고리로 이뤄져 있다. 라탁 고리 Ratak-Kette(해뜨기-섬들)는 14개의 환초와 2개의 섬으로 동쪽에 놓여 있으며, 서쪽에 있는 랄릭 고리 Ralik-Kette(해지기-섬들)는 15개의 환초와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 섬 고리들에 1156개의 크고 작은 섬들과 870개의 암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곳은 태평양에서 약 19만㎢의 지역으로 뻗어 있다.

미크로네시아로부터 기원 전 2000년경에 이주해왔다는 사실 이외에 이 군도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다. 최초의 유럽인으로서는 1526년 캐롤라인 제도에 맨 처음 도착했던 스페인인 알론스 데 살라사라가 이 마셜 군도에도 최초로 당도하였고, 1529년 스페인 선원 알바로 데 사베드라가 왔다. 하지만 스페인은 이 섬의 소유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그 후 200년 동안, 1788년 영국선장 존 마셜이 이곳에 올 때 까지 만해도 스페인은 이곳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1816년 경 캐롤라인 제도에 왔던 러시아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였던 오토 폰 코체뷔가 처음으로 마셜 군도의 지도를 제작했다. 1885년 독일 무역회사가 이 군도에 세워진 이후 1886년 독일 황제는 빌헬름 크나페 Wilhelm Knappe를 이곳으로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였으며, 1906년 마셜 제도는 독일-뉴기니 식민지의 일부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1914년 일본 군대가 이 군도를 점령하였고 그들의 군사기지를 구축하였다. 전쟁 이후 일본은 국제연맹으로부터 남태평양 위임 통치의 틀 안에서 이 군도를 통치하였다. 1944년 1월 31일 크바야라인 Kwajalein 환초 섬은 다도해의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공습을 받았고 이곳을 에워싼 맨 처음 전투 이후 마셜 군도에 편입되었다. 불과 몇 주 만에 30개 이상의 섬들이 미국의 수중에 떨어졌으며, 미국은

마주로에 군사기지를 구축하였다. 이 2차 대전 후에는 이 군도가 유엔에 의해서 미국신탁관리 태평양 섬들에 속하게 되었다. 미국은 1960년대 핵폭탄과 수소폭탄 실험을 비키니 Bikini와 애니위톡 Enewetak에서 감행하였다. 1966년 이 섬들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미국은 선포했으나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아서 1970년대 중반 다시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 지역은 2010년 이후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몇 몇 지역은 24.000년 동안 폐쇄지역으로 선포되었다.

독립을 원했던 마셜 제도는 1983년 미국과 연합협약(1986년부터 발효)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이 마셜 제도의 방위를 맡고 있다. 과거 유엔을 통해서 미국의 공식 신탁 사무가 끝난 이후 1990년 국제 법에 따라 이 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셜 제도 공화국,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팔라우 도국은 유엔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쿠바에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찬성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소수의 국가군에 속한다.

4. 결론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태평양에서의 세계열강들의 식민 지배와 관련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지만, 독일은 태평양 식민 지배를 했던 당사국이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독일의 식민 지배 시절 여러 분야에서 독일이 조사 연구한 자료들을 수집·분석하는 일과 이와 병행해서 태평양 지역 현지에서 식민 지배가 남긴 흔적들에 대한 직접 조사 연구가 동반될 때 태평양에서의 세계열강들의 식민 지배와 영향에 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질 것으

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은 군사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연합계약을 통해서 오늘날도 미크로네시아 독립국들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과거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 및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가 태평양의 제도들을 위임통치한 바 있으나 이들의 세력은 약화되어 오늘날 큰 의미를 지니고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식과 더불어 대부분의 태평양 제도들은 미국의 신탁통치를 직접 받았고, 오늘날 미국의 미크로네시아 해외 지배 영토(괌, 북 마리아나)를 제외하고도 미크로네시아의 독립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정치 및 군사 영향권 하에 (예를 들면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팔라우 도국, 마셜 공화국) 놓여 있다. 앞으로 태평양 지역을 에워싸고 아시아 강국(중국, 일본) 및 호주가 영향권 확대에 나설 수 있지만, 사실상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Conrad, Sebastian: Deutsche Kolonialgeschichte, München 2008.

Gerlach, Hans-Henning/ Andreas Birken: Die Südsee und die deutsche Seepost, deutsche Kolonien und deutsche Kolonialpolitik. Bd.4, Königsbronn 2001.

Graichen, Gisela/ Gründer, Horst/Diedrich, Holger: Deutsche Kolonien. Traum und Trauma. Berlin 2005.

Graudenz, Karlheinz/ Schindler, Hanns-Michael: Die deutschen Kolonien, Augsburg 1994.

Gründer, Horst: Geschichte der Deutschen Kolonien. Paderborn 2004.

Hardach, Gerd: Deutscher Imperialismus in der Südsee. Die Marianen 1899 bis 1914. in: Wilfried Wagner (Hg.): Strukturwandel im Pazifischen Raum. Referate der Jahrestagung des Arbeitskreises Pazifik vom 9.11. September 1987 in Bremen. Übersee-Museum Bremen, Bremen 1988.

Hardach, Gerd: König Kopra. Die Marianen unter deutscher Herrschaft 1899-1914. Beiträge zur Kolonial- und Überseegeschichte. Bd. 49, Stuttgart 1990.

Heyden, Ulrich van/ Zeller, Joachim Zeller (Hg.): Macht und Anteil an der Weltherrschaft. Berlin und der deutsche Kolonialismus. Münster 2005.

Höpker, Thomas/ Petschull, Jürgen: Der Wahn vom Weltreich. Die Geschichte der deutschen Kolonien. Herrsching 1986.

Karl, Ferdinand/ Mückler, Hermann: Oasen der Südsee. Die größten "Kleinststaaten" der Welt. Ostmikronesien: Marshall-Inseln, Gilbert-Inseln, Nauru. Weishaupt, Gnas 2002.

Klein, Dieter: Neuguinea als deutsches Utopia: August Engelhardt und sein Sonnenorden. In: Die Deutsche Südsee 1884-1914. Paderborn 2001.

Kundrus, Birthe (Hg.): Phantasiereiche: Zur Kulturgeschichte des deutschen Kolonialismus. Frankfurt a/M. 2003.

Mückler, Hermann: Traditionelle und moderne Mobilität auf Atollinseln: Zur räumlichen Orientierung, Navigation, Bootsbau und Migration in

Mikronesien; in: Mitteilungen der Anthropologischen Gesellschaft Wien, Band 133, Wien 2002.

Mühlbauer, Martin: Marshall Inseln. In: W. Kreisel (Hg.): Mythos Südsee. Länderprofile Ozeaniens zu Wirtschaft und Gesellschaft. Hamburg 2006.

Schinzinger, Francesca: Die Kolonien und das Deutsche Reich. Die wirtschaftliche Bedeutung der deutschen Besitzungen in Übersee. Wiesbaden 1984.

Schultz-Naumann, Joachim: Unter Kaisers Flagge, Deutschlands Schutzgebiete im Pazifik und in China einst und heute. München 1985.

Speitkamp, Winfried: Deutsche Kolonialgeschichte, Stuttgart 2005.

(아래의 인터넷 위키페디아 접속일은 2010.3.15-2010.4.17 사이)

http://de.wikipedia.org/wiki/Adelbert_von_Chamisso

http://de.wikipedia.org/wiki/Bougainville

http://de.wikipedia.org/wiki/Deutsch-Neuguinea

http://de.wikipedia.org/wiki/Gilbertinseln

http://de.wikipedia.org/wiki/Guam

http://de.wikipedia.org/wiki/Karolinen

http://de.wikipedia.org/wiki/Kiautschou

http://de.wikipedia.org/wiki/Kiribati

http://de.wikipedia.org/wiki/Marianen.

http://de.wikipedia.org/wiki/Marshall-Inseln

http://de.wikipedia.org/wiki/Melanesien

http://de.wikipedia.org/wiki/Mikronesien

http://de.wikipedia.org/wiki/Nauru

http://de.wikipedia.org/Neuguinea

http://de.wikipedia.org/Neuguinea-Kompagnie

http://de.wikipedia.org/Palau

http://de.wikipedia.org/Polynesien

http://de.wikipedia.org/Qingdao

http://de.wikipedia.org/wiki/Salomonen

http://de.wikipedia.org/wiki/Spanisch-Amerikanischer_Krieg

Abstract

The Review of Micronesia: Colonization and Independence

Kim, Hi-Youl*

This paper reviews the past and the presence of Micronesia which is a subregion of Oceania, comprising thousands of small islands in the western Pacific Ocean.

This area was to come under European domination quite early. The Mariana Islands and the Caroline Islands were colonized by the Spanish and these territories were part of the Spanish East Indies and governed from the Spanish Philippines from the early 17th century until 1898. In the later 19th century the area would be divided between the U.S., England and Germany. The United States took control of Guam following the Spanish-American War of 1898 and colonized Wake Island. Germany took Nauru from England in 1888 and bought Palau, Caroline and Northern Mariana Islands from Spain in 1899. This area, Nauru in 1888 and Marshall Islands in 1885 belonged to 'German New Guinea' (Deutsch-Neuguinea, 1884-1919). The British Empire took the Gilbert Islands (Kiribati). Germany's Pacific Island territories were taken from it during the First World War and became League of Nations Mandates. Nauru was administered by Australia, England and New Zealand in 1920, while Germany's other territories in Micronesia were given as a mandate to Japan in 1919 and were colonized in the name of the 'South Pacific Mandate'. After Japan's defeat in the

* Jeju Nat. Uni.

Second World War its mandate became a United Nations Trusteeship in 1947 ruled by the United States, th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Today, most islands of Micronesia consist of independent states, with the exceptions of Guam, Wake Island and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which are U.S. territories. The United States is the only country still influencing the area of Micronesia because these independent small countries also have treaties with the U.S. for their national securities and economic support.

Key Words

Review of Micronesia

교신 : 김희열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과
(E-mail : hiyoul@jejunu.ac.kr 전화 : 064-754-2741)